

202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1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

성경: 롬 5:10, 12, 14, 17-18, 21, 6:4, 9, 16, 21-23, 7:5, 10, 13, 24, 8:2, 6, 10-11, 38-39

I.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장들에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핵심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 생명(롬 5:10, 17-18, 21, 6:4, 22-23, 7:10, 8:2, 6, 10-11, 38-39), 죽음(롬 5:12, 14, 17, 21, 6:9, 16, 21, 23, 7:5, 10, 13, 24, 8:2, 6, 38).

- A.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죽음의 나무)는 두 노선—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산출하는데, 이 두 노선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마친다. 생명은 생명나무(창 2:9)와 함께 시작하여, 생명나무(계 22:1-2), 생명의 빛(계 21:23, 22:5), 생명의 영광(계 21:10-11, 23)이 있는 생명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마친다 (계 22:1-2). 죽음은 지식나무와 함께 시작하여(창 2:17) 불 못으로 마친다(계 20:10, 계 20:14).
- B.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지만(요 15:5),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한다(비교 창 3:5).
- C.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요 14:6 상, 11:25, 요일 1:2)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요 10:10 하) 오셨다. 그분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다(요 12:24, 눅 12:49-50). 이것은 생명의 영의 법(롬 8:2), 즉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 하)이 되시어 우리의 영과 생각과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시므로써 우리가 생명에 의해 삼켜져 생명의 성을 위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롬 8:10, 6, 11, 고후 5:4).
- D. 생명나무는 음식의 형태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 창 2:9, 요 1:4, 10:10 하, 14:6 상, 고전 15:45 하, 요 6:35, 57.
 - 1.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소화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 비교 요 5:39-40, 고후 3:6.
 - 2. 생명나무는 생명수의 강의 이쪽과 저쪽에 걸쳐 자라는데, 이것은 이 나무가 덩굴나무(포도나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또한 생명이시므로, 그분은 생명나무이시다 — 계 2:7, 22:1-2, 요 15:1, 14:6 상.
 - 3.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시므로써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였고, 그분을 먹음으로써 살 수 있게 하셨다 — 요 10:10 하, 요 6:51, 요 6:57, 요 6:63, 비교 사 7:14-15.

II.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위해 생명나무이며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의 회복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명나무이며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신 주님을 먹을 수 있다.

- A.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분을 먹을 수 있다.
 - 1.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 마 4:4.
 - 2. “주님의 말씀들이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 시 119:103.
 - 3.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은 나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주셨다. 그러시고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를 불리고 너의 속부분들을 채워라.’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그 달콤함이 꿀과 같았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 집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 겔 3:1-4.

4.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 렘 15:16.
 5.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 요 6:57, 63.
 6.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 엡 6:17-18 상.
 7.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 시 119:15, 각주 1.
- B.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삶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그분을 먹을 수 있다 — 마 24:45-47.
1.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 요 4:34.
 2.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 요 17:4, 비교 골 1:9-11.
- C. 우리는 합당한 사람들을 접촉함으로 그분을 먹을 수 있다 — 레 11:1-3, 9, 13, 21.
1. 먹는다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접촉하고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 들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결국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된다.
 2. 레위기 11 장에서 모든 동물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하며, 먹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상징한다 — 비교 행 10:9 하-14, 27-29.
 3.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접촉 할지를 주의해야 한다 — 비교 레 11:46-47, 고전 15:33, 고후 6:14-18, 딤후 2:22.
 4. 굽이 갈라져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레 11:3, 비교 레 11:4-8, 레 11:26-28)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빌 1:9-10)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상징한다(시 119:15).
 5.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수중 생물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시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지느러미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비늘은 물고기를 보호하고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소금에 절지 않도록 지켜 준다.) — 레 11:9-12.
 6.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생명의 씨를 음식으로 먹는 새들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세상을 초월한 생명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생명에 속한 것들을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 삼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 레 11:13.
 7. 날개가 있고 또 땅에서 뿔 수 있도록 그 발 뒤에 다리가 있는 곤충은 세상을 초월한 생명 안에서 살고 움직일 수 있으며 세상에서 그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 레 11:21-22.
- D. 우리는 유일한 하나의 터 위에 있는 집회들 안에서 그분을 잔치로 누림으로써 그분을 먹을 수 있다.
1.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을 두 가지 방식으로 누릴 수 있었다. 일반적인이고도 개인적인 방식의 누림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과도 그것을 일반적인 몫으로 누리는 것이었다(신 12:15). 특별하고도 단체적인 방식의 누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정해진 명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장소에서 최상의 몫인 첫 열매와 첫 새끼를 누리는 것이었다(신 12:5-7, 17-18).
 2. 마찬가지로 신약의 믿는 이들도 두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 한 방면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일반적이며 개인적인 방식으로 누리는 것이고, 다른 한 방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유일한 하나의 터 위에 있는 합당한 교회생활의 집회들 가운데에서 최상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특별하며 단체적인 방식으로 누리는 것이다.

III. 우리는 생명의 흐름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생명을 보존함에 있어서 생명의 길, 생명의 노선 안에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써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 요 10:10 하, 계 22:1-2, 엡 4:16, 2:21-22.

- A.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칙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고 봉사함으로써 생명의 길에 머물러야 한다.

1.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내적인 느낌, 곧 생명의 인도에 따라 살고 행해야 한다 — 롬 8:6, 고후 2:13.
 2.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다.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 우리 속의 신성한 생명이 동의하는가의 여부에 속한 문제이다 — 마 17:3, 5, 8, 비교 말 2:15-16.
- B.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그분을 좇아 달려가게 함으로써 생명의 길에 머물러야 한다 — 막 12:30, 아 1:4 상.
1.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항상 그분께 반드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향해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존재를 누릴 것이다 — 계 2:4-5, 7.
 2.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을 그분께 약혼시켜서 그들을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인격에 대한 참된 감상과 사랑과 누림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 고후 11:2-3.
 3.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 즉 우리가 받아들인 그 인격 자체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 믿음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랑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에서 나오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들을 살아낼 수 있게 한다 — 벧후 1:1, 히 12:1-2 상, 고후 4:13, 갈 5:6, 요 1:12-13, 21:15-17, 골 3:4.
 4.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아들인 그 생명은 바로 인격이다.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이순간에도 또한 날마다 그분의 현재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그분을 새롭게 접촉해야 한다 — 요 11:25, 14:5-6, 딤후 1:14, 요 14:21, 23, 고후 5:14-15, 계 2:4-7, 골 1:18 하.
 5.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거처를 만드실 것이다(요 14:21, 23).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셔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사랑 안에 지켜주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저를 매혹시켜 주십시오! 저를 항상 당신의 사랑스런 임재 안에 지켜 주십시오.”(비교 아 1:2-4).
 6.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도록 하는 일과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도록 적시는 일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으로 비추고 우리를 통하여 비추는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보여준 후에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이끈다 — 창 2:8-9, 3:24, 히 10:19-20, 계 22:14, 롬 4:22-24, 6:19, 22, 8:18-19, 21, 고전 1:30, 롬 5:5, 8:30-39, 요일 4:16-18.
 7.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신 그분 자신을 주입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모든 형제들을 사랑한다(요일 4:8, 16, 19-21).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모든 형제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된다.
 8.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다 — “내 주를 진정 사랑하지만 내 사랑 없으니 모든 사랑은 주의 것이라 사랑으로 사네 아무 것 아닌 나를 비워서 주님 안에서 삼킨 바 되리” (영한 동변 찬송가 546 장 1 절), “다른 것을 사랑한 맘 결코 안식 못하리 주께 내 맘 드리고서 주만 사랑하리라” (영한 동변 찬송가 547 장 1 절).